

발해의 불교유적 유물' 출간

9월11~13일 발해문화 세미나

발해사 인터넷 사이트 개설

발해불교연구 '활발'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규합, 고구려에 이어 2백여년간 만주 동부를 중심으로 동북아를 주를 잡았으나 우리역사로 인식되지 못한 채 미개척분야로 남아있는 발해(渤海·698~926). 발해건국 1천3백주년을 맞아 발해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학계의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발해 불교유적과 유물에 대한 연구 전문저서가 처음으로 나온 것을 비롯 오는 9월 발해문화 국제학술대회가 준비되고 있으며, 발해사 전문 인터넷 사이트도 개설됐다.

중국 연변 발해사연구소 소장 박학봉씨의 저술로, 최근 서경문화사에서 펴낸 <발해의 불교유적과 유물>은 지금까지의 발해불교 연구성과를 종합분석해 43개의 사지(寺址)와 11개소의 탑지(塔址), 15종류의 유물을 소개하고 있다. <발해의 불교유적과 유물>은 발해불교와 관련한 2, 3편의 논문이 간행물에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 전문저서로는 처음 출판된 것.

제1장 유적편에서는 중경현덕부(中京顯德府) 관할지역의 사지를 비롯 총 43개의 사지에 관한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학계에서 절터라는 견해와 탑지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는 고산촌사지(高山村寺址)와 관련, '고산촌사지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통해 '탑지'임을 주장, 논쟁을 끈다.

3개의 묘탑, 사찰에 건축된 3개의 탑, 탑지로 추정되는 5개의 탑지 등 11개의 탑지에 대한 연구자료도 수록하고 있다.

제2장 유물편은 불교건축과 불상 및 불교유물로 분류했다. 특히 불상 및 불교

유물은 △불상의 재료 △불상의 자세 △불상의 형태 △사리장치 등으로 세분화, 각각의 연구성과를 자세히 수록했다. 박씨는 "발해의 사지와 탑지, 유물을 연구하여 발해의 역사를 사실대로 밝히는 것은 마땅히 짚어줘야 할 역사적 중책"이라며 "발해 불교유적과 유물에 대한 연구는 발해의 불교문화와 발해사 연구에 중요한 의의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고구려연구회(회장 서길수)가 주최하는 '발해건국 1300주년 기념 발해문화 국제학술대회'는 오는 9월11~13일까지 용산 전쟁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발해의 유적과 유물' 대주제로 진행될 12일에는 중국, 한국, 북한, 일본의 발해유적 조사와 소장 유물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 13일에는 '발해문화의 여러양상'을 주제로 △발해의 불교와 불상(정영호·한국고대사) 등이 발표된다.

서길수 회장은 "발해가 우리 역사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발해는 우리 역사다'라고 목청만 높이기 보다는

발해 연구자의 양성과 기초자료의 확보 등 내실있는 연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발해연구에 있어 발해전공 박사는 송기호 교수(서울대) 등 3명뿐, 현재 박사과정 중인 연구자를 합쳐도 10명이 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북한은 국가차원에서 운영하는 '발해연구소'가 따로 있을 만큼 발해연구에 있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지난 4월에는 <발해사 연구> <발해의 역사와 논문> 등 발해사 연구도서를 대량 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성되고 있는 남북화해·교류 무드도 이후 발해사 연구에 활기를 더해줄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경성대 한규철 교수가 개설한 '발해사 연구 사이트(http://cla.kyungsu.ac.kr/~hange/)'는 △발해사 연구실 △발해유적보기 △한국사 강의 자료실 등을 통해 발해관련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jekim@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세계종교연구소

종교지도자간 대화로 화합 모색 종교와 현대과학 접목도 활발

불교 기독교 힌두교 등 세계 6개 종교와 각 종교의 문화적 전통을 비교·연구하는 사이트가 있다. 미국 버클리 지역에 있는 사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종교연구소(Institute For World Religions)가 최근 개설한 이 사이트는 세계의 다른 주요 종교와 종교간의 대화를 나누며, 중국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중요한 특색을 재 해석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종교연구소는 서양의 가톨릭계 신부와 불교계 스님과의 종교적 화합을 위한 대화의 장에서 로마 가톨릭의 유년법사경과 중국 불교계의 삼장 법사인 휴와스님이 '전(全)그리스도교회 통일주의'에 서로 영감을 받은 것이 세계종교연구소 설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휴와스님은 중국의 선불교 선사 중에서 '웨이 양(派) 계열의 스님으로서 1962년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10만명의 일반 회원이 가입해 있는 '불국토-불교도연합'이라는 불교단체를 설립해 현재까지 이끌어가고 있다. 불국토-불교도연합은 미국, 캐나다 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 불교 포교를 위해 사찰과 학교를 설립했다.

세계종교연구소는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대학의 종교학 연구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불교와 같은 동양 종교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연구하는 학자와 연구소가 밀집해 있는 샌프란시스코 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들과 학문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상호 교류하고 있어 새로운 차원의 종교간의 연구를 도모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www.drba.org/iwr-flier.html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문학작 수사로 석굴암 왜곡"

성낙주씨 유홍준교수의 해석에 반론

'인물과 사상'에 또 기고



"현재의 석굴암은 대중과 유리된 채 문학적 수사에 둘러 신비화의 길을 걸게 됐으며, 술대없는 논쟁에 발목이 잡혀 그 원형에 대한 탐구에 많은 지체를 가져왔다"

현직 중학교 교사이며 소설가인 성낙주씨는 <인물과 사상>7호에 기고한 '문화권력 유홍준의 지적 타락-석굴암을 위한 변명'에서 유홍준교수 등에 의한 석굴암을 둘러싼 논쟁의 폐해를 지적하고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먼저 성씨는 "60년대 석굴암 보수를 담당했던 황수영박사 등이 목조전실을 세우고 팔부신중을 나란히 펼쳐놓은 것이 석실내부의 습기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유교수의 지적은 트함산의 기상조건이나 주위환경 등 일반적 상식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팔부신중의 배열과 관련, 유교수는 주실에 비해 전실이 현저히 협소해 절곡형을 주장할 뿐 주실과 전실의 면적이 똑같

이 계산되는 문명대교수와 신영훈씨의 도면을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광창실에 대해서도 석굴암은 불내증(佛內證)의 세계를 형상화한 것이므로 굳이 밝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광창을 쭈개 되면 창살의 그림자가 본존불의 얼굴을 망치는 것은 물론 비바람, 모래의 유입에 따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인물과 사상>2호에서 유홍준교수의 주장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가한 바 있는 성낙주씨는 "석굴암논쟁 자체를 백안시하는 것은 아니다"며 "학문적 논란이나 정쟁화가 어떤 학파나 개인의 위상제고 등 이른바 문화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운기서 기자

(gsyoon@buddhapia.com)

'21세기 승가상...' 주제

24일 강원연합 토론회

전국전통강원연합(의장 종현스님)은 '21세기 승가상 정립과 그 속에서의 강원도의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24일 오전 10시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국제소식

NASA 인공위성 레이더가 찾은

캄 앙코르에 새 고대도시

미항공우주국(NASA)이 인공위성의 레이더를 이용해 캄보디아의 고대 도시 앙코르(Angkor)의 비밀을 풀었다고 최근 CNN이 보도했다.

힌두교도와 불교도에 의해 건설된 앙코르시(市)는 도시 발달의 정점을 이루었던 12세기경에는 무려 1백만명의 시민들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크기의 도시 규모를 이루고 살았다. 그러나 이 도시는 현재 정글에 뒤덮여 있을 뿐, 앙코르와트(세계문화유산 지정)만이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다.

미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인공위성이 이 지역을 지날 때 고성능 레이더를 이용, 3차원으로 앙코르와트 주변 지역을 촬영·분석한 결과 앙코르와트 보다 2백년정도 앞선 유적을 발견했다는 것. 엘리자베스 무어교수(런던대 고고학)는 "이번 발견은 앙코르 유적이 고고학계에서 추정하는 연대 보다 훨씬 앞선다는 가정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종욱 기자

인도 아이오디야시 유적 놓고

불교-힌두교 '성지논쟁'

인도 북쪽에 위치한 아이오디야(Ayodhya)시에는 사원의 유적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과연 사원 유적들은 불교 사원인가 아니면 힌두교 사원인가. '힌두'지(紙)에 따르면 최근 인도 고고학계에서는 아이오디야 사원 유적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고 한다.

수할 사살스님은 "BC 5세기경에 부처님이 이 곳을 순차로 다녀갔으며, 그때 이곳의 명칭은 '아이오디야'가 아니라 '사케타(Saketa)'였다"며 "이 곳이 불교성지로서 인정돼야 하며, 스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수행처도 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오디야는 힌두교를 깊이 믿었던 라마왕의 탄생지로 기록되어 있다. 또 힌두교도들은 1528년 아이오디야 사를 힌두교 성지로 삼고, 라마왕의 업적을 기리는 사원을 건축했다.

인도의 국무장관 아탈 베아리 바파이는 "이 도시의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발굴을 할 예정"이라며 "사살스님의 주장이 옳다면 불교 사원 건축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불교의 현황을 집대성한

『한국불교총람』 1998년판 발행

주요내용

- 1) 한국불교의 현황: 최근의 한국불교계 흐름을 약술.
- 2) 종단: 불교종단 50여곳의 현황을 수록.
- 3) 법인: 불교관련 법인 150여곳의 현황을 수록.
- 4) 불교단체 / 기관: 불교단체 및 기관 4,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 신행·포교(사암연합회, 신행단체)
  - 청년·학생(전국단위 청년단체 및 학생연합회)
  - 교육·연수(학교, 유치원, 계가교육기관, 승가교육기관, 연수기관)
  - 언론·출판(방송, 신문, 잡지, 출판사, 학술지)
  - 학술·문화(학술, 연구, 문화, 예술기관 및 단체)
  - 사회·복지(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 5) 불교관련업체: 불교관련 업체 1,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 6) 사찰: 국내외 사찰, 포교당 13,000여곳의 목록을 수록.
- 7) 인명: 승가 및 재가불자 2,500여명의 개인 인명자료를 수록.
- 8) 불교문화재: 초판 이후 추가 지정된 200여건의 불교관련 문화재 목록을 수록.
- 9) 불교도서논문: 초판 이후 간행된 3,200여건의 불교관련 단행본 및 박사학위논문 목록을 수록.
- 10) 한국불교연표: 초판 이후 한국불교관련 사건을 수록.

4x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 정가 120,000원

보급문의: 02-719-2607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한국불교총람 편찬위원회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TEL 02-719-2606 FAX 02-719-5052

생전예수재 법회시 설법자료, 법보시 책 및 예수재용품 보급안내

생전예수재의 공덕

생전예수재의 의미, 유래, 공덕 전생의 빛과 땅, 예수재의 의식, 저승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예수재 행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예수재 행사 동참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으며 불자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 ◎ 200원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명단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 신국판 72페이지 ◎ 법보시 특가: 1,500원

생전예수재 용품(1,500원, 2,000원)

감로출판사 ☎ (02)723-4306~7, 팩스: (02)738-8682

불충위원회 지정업체

여름 불교 학교 현수막 제작 보급



일시: ○월 ○일~○월 ○일 장소: ○○사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 대한불교 △△종 ○○사



▲ 불자의 집 교패 크기: 5.5cm x 7cm ▲ 부채 크기: 21.5cm x 29.5cm ▲ 어린이용 T셔츠 (양면 20수) ▲ 성인용 T셔츠 (실켓 60수)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 (02)723-4306~7, 팩스: (02)738-8682